

스티로폴 재활용 전국 으뜸

서부 경남의 요충지에 자리한 인구 46만 명의 김해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도시이며 서기 42년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창건한 이래 가락국 500년의 옛 수도로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피웠던 역사의 고장이다.

현재는 남동일해공업벨트의 중심으로 대도시와 인접하여있고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불류유통과 인력 수급, 원자재 확보의 이점 등으로 5,330여 개의 기업이 입하고 있다. 또한 북부, 장유, 진영 등에 신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다.

2006년 스티로폴 199톤(2.5톤 차량 1,990대분) 재활용



재활용기반시설 (스티로폴 감용동)

- 위 치 : 재활용품선별장 부지 내
- 건물면적 : 166㎡
- 시설현황

처리 시설명	시설규격 (능력)	처리 예상량	방지시설명	설치비용 (백만원)
파쇄시설	25Hp* 17기 (0.8톤/hr)	90톤/년	[대기분야] 저성사이로, 벽체여과포 [소음진동분야] 방음실 및 방진매드	23
감용시설	50Hp* 17기 (0.4톤/hr)		흡착에 의한 시설	100

김해시는 자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준공하고 166㎡ 규모의 스티로폴 감용동을 건립 운영하면서 감용기 400kg/h 1대와 예비 2대 등 총 3대를 가동하여 2006년도에 스티로폴 199톤을 재활용하였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100ℓ 종량제봉투 199,000장(8억 원) 절약, 쓰레기 매립장 2,000평(높이 3m) 재사용, 액자 등 최종재활용품 수출 등에 의한 산업계 부가가치 창출 4억 원 등으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해시는 단체장 및 담당자의 높은 관심과 재활용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선별장내에 영상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관내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견학 및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방문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재활용이 생활 가운데 실천되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